

# 출세보다는 행복한 건축사가 되어야

Happy Architect vs. Successful Architect

權棹雄/(주)정림건축

by Kwon, Do-Woong

길위에 낙엽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고 가을인가 했더니 한차례 비를 뿌린 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내일은 영하의 날씨가 될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고 보니 벌써 겨울로 접어드는가 보다.

산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한파는 건축계에도 예외없이 찾아들어 수년째 움추리게 되니 금년은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것 같고, 이럴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어느 임금님이 중환에 걸렸는데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않아 걱정하고 있을때 명의 한분이 찾아와 진맥을 한 후 내린 처방은 간단한 것이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하루만 빌려 입으면 낫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에 사람을 풀어 행복 할듯한 사람-주로 고관과 부호 등 출세한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 보았으나 행복을 느끼기는 커녕 불만과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낙심한 채 대궐로 돌아오던 어느 신하가 산속에서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손도손 새어 나오는 말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밀져야 본전이다 하는 심정으로 찾아 들어가 보니 농사를 짓는 젊은 내외였고 바로 이들이 전국을 찾아 헤매던 대상이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내의를 빌려 주면 많은 상금을 내리겠다고 하니 농부 내외는 얼굴을 붉히며 하는 말이 살림이 변변치 못하여 엄동설한에도 내의를 입지 못하고 지낸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남보다 훌륭하게 되어 출세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세운 뜻이나 목적을 이루었을 때 얻는 성취감이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추수를 거두고 느끼는 보람과 다음해의 농사 계획을 세우는 소박한 즐거움이 추위를 잊게 할 정도의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고, 부와 높은 지위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다.

“가난은 선비의 떳떳함이다(貧士之常也)”라고 하는데 건축사도 선비(士)이기에 불경기로부터 기인된 경제적 어려움은 부끄러움이 될 수 없다.

건축사가 걱정하고 한탄한다고 산업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갈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한가지씩 정리하면서 전문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재물을 잃는다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라고 했다.

안밖으로 근심 걱정(內憂外患)이 있으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은 자량이 되지 못할 뿐 떳떳할 수는 있다지만 근심걱정이 있으면 이것은 큰일 일 수밖에 없다.

산적된 건축계의 문제를 풀기위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편에 이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고 제각기 목소리를 높이는 집안 형편이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니 더러 출세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건축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는 사람도 있을 터이지만 어쨌든 건축계 내부의 불협화음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기존단체가 오죽 역할을 못했으면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느쪽에 박수를 보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보통 건축사는 헛갈릴 수밖에 없으니 중심이 잡히지 않는다.

○○대책위원회 같은 것이 많을수록 안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제점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선 행정인 경우가 많다.

세 단체도 많은데 어찌자고 단체만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다.

밖으로는 UR, 건축관련 법개정, 소방법 개정 등 건축사 업무를 잠식 또는 위협하는 외환(外患)이 그치지 않고 있고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기가 목전에 와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을 것이다.

자금과 조직력이 앞선 대형건설회사에서 설계조직을

“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으며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을 개의치 않으며 책을 읽는 선비의 마음으로 내일을 대비해 자신의 실력을 배양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건축을 전공으로 택하고 설계분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던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멋진 건물을 설계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이 시기를 슬기롭게 보내야 할 것이다.

많은 건축사의 꿈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자신의 집이든 건축주로부터 의뢰받은 것이든 아름답고 편안한 건물을 설계하는 것인 이유는 그 과정이 즐거움이고 결과가 보람이며 자신의 생각을 영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

만든다면 많은 숫자의 설계 인원이 대이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소방법 개정으로 설계 용역비의 일부를 소방 관련 공무원의 노후 생활 대책 기금(?)으로 떼어 주어야 하는 것도 많은 단체들이 방관하고 있는 듯 싶어 안타깝기만 하다.

안팎으로 근심걱정 없는 사람이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마련이고 그것이 건축사로서의 보람이고 행복으로의 첩경일 가능성인 것이다.

안팎으로의 문제를 건축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로부터의 냉대와 명예실추는 불가피하게 되며 그것은 재물보다도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참고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게 된다.

참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다(忍之一字衆妙之門)라고 급한 마음으로는 될 일도 안되는 수가 있기 마련이다.

한정된 국토인데 불경기로 건축이 부진하다고 땅 자체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언젠가는 우리의 손에 의해 설계될 수밖에 없고, 더 늦어지더라도 후배들에게 그 일을 넘겨 주면 되는 일이다.

초조해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UR과 관련하여 외국 설계 업체가 몰려온다 한들 국민의 애국심이 그네들에게 모든 일을 의뢰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으며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을 개의치 않으며 책을 읽는 선비의 마음으로 내일을 대비해 자신의 실력을 배양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건축을 전공으로 택하고 설계분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던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멋진 건물을 설계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이 시기를 슬기롭게 보내야 할 것이다.

많은 건축사의 꿈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자신의 집이든 건축주로부터 의뢰받은 것이든 아름답고

편안한 건물을 설계하는 것인 이유는 그 과정이 즐거움이고 결과가 보람이며 자신의 생각을 영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방화, 국제화에서의 경쟁력은 남의 뒤를 급하게 쫓아가는 것이 아닌 차별화라 한다. 된장찌개와 김치를 먹는 것이 햄버거와 양정식을 먹는 것에 비해 초라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는 한 영원히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은 불가능 할 것이고 외국설계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문을 굳게 닫아 걸자는 것이 아닌 외국의 문화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정신적인 여유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예술과 기술은 성급함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인고의 산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의 보람은 대가를 필요로 하고 대가의 지불없이 성취와 성공에 이은 행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성취와 성공은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 하루 하고싶은 목표로 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잔잔한 파도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며, 주변사람과 비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남보다 높게, 많이 훌륭하게 되는 출세는 서두의 이야기에서의 고관과 부호들처럼 행복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가난한 농부나 선비의 마음에서 행복을 읽을 수 있듯이 많은 건축사는 출세보다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끼 굶지 않고 크던 작던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가난이기에...